



목 차

건설관련 소식 1

- 김두관 경남도지사 불모산터널 현장 방문
-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시범 사업
- 경남도, 해빙기 건설공사 현장 전문가 초빙 특별점검 나서
- 경남도, 건설사업 관계자 회의 개최
- 허성무 정무부지사, GFEZ 하동지구 방문
- 불모산터널 임시개통 후 실시간 모니터링
- 경남도, 동남권 연계 사통팔달 광역도로망 구축
- 경남도, 하천사업 예산 상반기 64% 집행
- 진주혁신도시내 경남개발공사 잔여토지 분양
- 경남도,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방지 나서
- 경남도 도시계획 소통의 場 마련
- 경남도,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본격 추진

지식정보 10

- 올해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4.33% 상승

- 12년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0.7% 상승
- 세계로 나아갈 교량설계 기법 개발
- 옹벽, 상가 등 위험중후 발견시 #4949로 제보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OPEN
- 온실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공포
- 국토부, 교통사고 잦은곳 1000곳 개선키로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협의 6,695건 적발

신기술 정보 19

- 일체형 PS보와 유압재으로 띠장에 선행 횡모멘트를 도입하여 버팀대 설치간격을 넓은 흠막이 지지 공법 (제645호)
- AGS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 기술(제644호)

건설기술심의 현황 20

계약심사 현황 20

기술인 나눔 정보 21



건설관련 소식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불모산터널 공사현장 방문

- 2월 29일 임시 개통



〈김두관지사 불모산터널 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2월 22일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이달 29일 임시 개통되는 1단계(성주사IC~상점IC, 왕복4차로, L=7.4Km)구간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건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현재 마무리 공사중인 불모산터널 구간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공사의 부실과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상점IC 접속도로가 기존 창원터널 도로에 합쳐지기 때문에 2단계 구간이 개통되기 전까지 퇴근시간 때에 병목현상과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불모산 터널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40일 앞당겨 임시개통하며,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임시 개통 이전에 안내표지판 및 차량이용 동선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오는 2015년 말 완공예정인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완암IC~부산시 강서구 생곡IC까지 연장 22.48km, 왕복 4차로로 3천713억 원이 투입되며, 완암IC~성주사IC, 상점IC~울하IC 2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내년 10월까지의 통행료를 받지 않으며 2단계 준공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경남도와 사업시행 관계자는 “통행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 전문가 등의 자문과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며, 준공 시까지 공사와 통행을 병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선변경 및 양보운전과 주의운전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자료 : 도로과 민자시설담당 (055)211-4695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시범 사업

- 경남도와 하나은행간 업무협력 MOU 체결



〈김두관지사, 하나은행장과 업무협력 MOU 체결〉

경상남도과 하나은행은 2월 15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개발을 통한 『서민·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시범사업』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민·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 시범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고, 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서민·근로자용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후 30년간 장기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에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상남도에 반환하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임대주택의 절대수 부족현상이 주택 매매가를 끌어올리면서 전세 및 임대가의 폭등으로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이 없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개발형 신탁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사한 정책개발도 가능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서민·근로자의 임대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서민·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정이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서민·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향후 경상남도과 하나은행은 시범사업으로 1~2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 자료 : 친환경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695

경남도, 해빙기 건설공사 현장 전문가 초빙 특별점검 나서

- 내실있는 점검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경남도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공사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건설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를 초빙하여 오는 3. 9일부터 3. 22까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건설공사 중 사업비 50억원이상(필요시 20억원), 공정율 20%이상인 건설현장으로 해빙기에 취약한 대규모 절·성토, 지하굴착, 흙막이, 가시설물, 건물 등 복합공종을 표본 선정하였으며,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등 제반규정, 주요자재의 규격·품질관리(시험실운영, 각종시험 실시), 책임감리원(공사감독관) 업무수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 지도·점검에 앞서 전문가 12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6일 전문가 초빙 간담회에서 행정지원국장(김춘수)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안전·환경관리 소홀이 우려된다고 강조” 하면서” 공사 유형별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경남도는 금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 사항은 발주청에 시정 및 사후관리토록 조치하고 부실시공 및 중대한 위해발생 현장은 부실별점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것이며, 한편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하여는 연말 표창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료 : 회계과 기술심의담당 (055)211-3552

경남도, 건설사업 관계자 회의 개최

- 2. 3(금) 14:00 경남도인재교육원에서
- 도내 건설사업 현장 관계자, 공무원 참석



경상남도가 건설사업의 재정조기집행과 건설현장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3일(금) 오후 2시, 경상남도인재개발원(구,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주요 건설현장 소장, 감리단장, 용역사 등 공사 관계자와 도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는 2012년 예산 조기집행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건설현장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무원이 함께 청렴결의를 한 후 청렴도 향상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년 건설행정 추진방향 소개 및 협조당부에 이어 지역 건설산업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개선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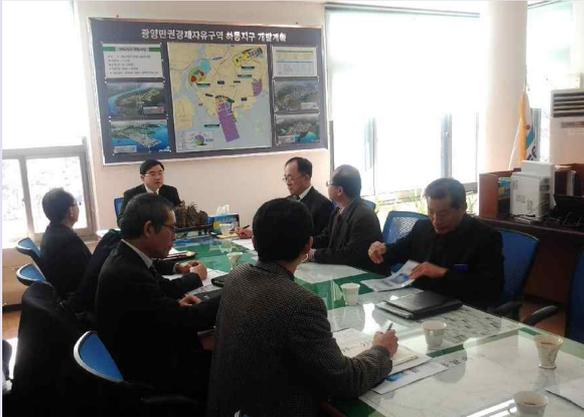
허성곤 경상남도 건설사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의 필요성과 건설분야의 청렴도 향상이 우리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재창출됨을 강조하며 건설사업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견인차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화, 그리고 재정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건설현장의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부실시공이 방지됨은 물론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 자료 :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5

허성무 정무부지사, GFEZ 하동지구 현장 방문

- 2월 1일(수) GFEZ 하동지구 개발현장 방문
- 하동지구 개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



<허성무정무부지사 GFEZ 하동사무소 방문 관계자 격려>

허성무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2월 1일 (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였다.

GFEZ 하동사무소장(서기용)은 업무보고에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노력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하동지구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축 건설"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하동지구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대상지를 둘러보고, 공정률 66%를 보이고 있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등 기반시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작업자의 안전과 더불어 철저한 품질관리 시공으로 사업기간 내 완공을 독려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과 금남면 일원에 광양제철 생산기능과 연관된 조선산업단지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경제특별구역으로 면적 12.27km², 계획인구 1만명, 사업기간은 2003~2020년으로 사업비는 2조1천179억 원이다.

▶ 자료 : 경제기업정책과 경제자유구역담당 (055)211-2984

불모산터널 임시개통 후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경남도는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지난달 29일 임시개통 한 1단계(성주사IC~상점IC,왕복4차로, L=7.4Km) 구간에 대하여 경남도, 경찰청, 사업시행자 등과 같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등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임시개통 후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불모산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정체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의 방학이 끝나고 개학 및 봄철 날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통행성수기까지 장기적인 교통량 변화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창원에서 불모산터널을 지나 상점IC 접속도로가 기존 창원터널 2차선 도로에 합쳐지기 때문에 퇴근시간 때에 병목현상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진행되고 있어 접속부 1차로 확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도 1020호선 상점교차로 전방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를 교차로 후방으로 이설함과 동시에 속도저감을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불모산IC 출구에서 시내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주동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옆 도로를 따라 가는 길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불모산동에서 창원대로를 횡단하여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고가도로를 창원시에서 이달에 착공하여 오는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 남천교 건설공사를 빠른 시일에 완료하여 장유에서 불모산터널과 천성터널을 지나 성주사IC 출구에서 국도25호 도청방면 진입차량과 안민터널 주행차량과의 엇갈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주사IC 출구차량에 대해 직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임시개통을 앞두고 SMS문자발송, 플랭카드 게시, 홍보 유인물 배포, 동정 소식지 등의 각종 회의자료에 게재, 교통통제센터의 전광판 및 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개통은 조경식재 등 마무리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자께서는 주의운전과 감속 및 양보운전이 절대 필요하다.

▶ 자료 : 도로과 민자시설팀당 (055)211-4692

경남도, 동남권 연계 사통팔달 광역도로망 구축 !!!

- 광역경제권내 1시간 접근성 확보
- 수도권에 버금가는 소통과 상생의 동남권 중심 경제기반 마련

경상남도는 기존 고속국도 조기확장과 신설 고속국도의 본격적인 추진여건을 조성하는 등 광역도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통팔달 광역도로망을 구축하여 동남 광역경제권 내 1시간 접근성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기 위함이다.

한편,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창원·김해·부산 중심의 동서축으로 형성되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남해안권 일주도로망을 비롯한 창원과 울산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도로망은 계획조차 미 수립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동서축 보완을 위해 함양 ~ 울산간 고속국도의 조기 착공과 창원 ~ 울산간 직통 경제고속국도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남북축 중심의 신항 ~ 동남권 신공항간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1단계로 신항 ~ 진례간 실시계획승인을 2012년 2월 시행할 예정이며, 동서화합 및 대구·경북·부산을 연결하는 기존 고속국도 기능제고를 위한 88선, 남해선(냉정 ~ 부산), 김해 ~ 부산외곽선 확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전 ~ 통영 고속국도를 거제와 거가대교를 경유하여, 남해선 가락IC와 중앙선 초정IC에 연결하는 U-타입 고속도로망 체계조정과 함께 국도5호선을 연장 지정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거점인 거제(저구만), 통영(한산도, 사량도), 남해(창선)를 연결하는 남해안 섬연계 도로망 구축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상·하위 도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도 3개년 조기 준공대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계속지구 41건 중 25건을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기 준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확대 등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동남권 사통팔달 광역도로망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부산·울산·18개 시·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 :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5

경남도, 하천사업 예산 상반기 64% 집행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하천 주요 공정 우기전 완료로 수해 예방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천관련 사업 6개 분야 526건 2천 730억원 중 1천 703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159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4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44억원, 수해복구사업 387억원 등이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 7월과 8월 태풍 '무이파' 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올 우기 전 복구가 절실하며, 경남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기 전 주요 공종인 호안공사를 완료하여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천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지보상 등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한편, 국비보조사업은 관계부처에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시·군에 조기 교부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더불어 집행사항을 꾸준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체불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의 지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비, 자재대 지급 지연, 임금체불 등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대금 직불 등을 조치하여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집행과 사업비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수시로 하천공사 시공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완벽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생태하천과 생태하천담당 (055)211-3193

진주혁신도시내 경남개발공사 잔여토지 분양

- 연립 및 단독 주택지, 공동주택, 호텔
및 병원 권장 용지 등

경남도는 미래 지향적이고 탄소제로의 녹색성장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경상남도개발공사 시행구간 토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조성중인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블록형 단독택지 및 연립주택용지의 택지분양과 공동주택 1필지, 호텔 및 병원 권장용지 1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등을 수의계약하기 위한 분양공고를 일간지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에 게재한다.

이번에 분양 공고되는 토지는 총 7필지 2십2만 7천㎡, 1천4백4십1억 원으로 블록형 단독택지 E3(51,710㎡, 125만원/3.3㎡), E-4(48,708㎡, 146만원/3.3㎡) 및 연립주택용지 B-3(24,865㎡, 186만원/3.3㎡)의 총 3필지로 주택법 제9조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A-12(76.582㎡, 257만원/3.3㎡), 상업시설인 호텔 및 병원 권장용지(14,988㎡, 420만원/3.3㎡), 주상복합시설(7,965㎡, 374만원/3.3㎡)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신청 접수 및 계약은 2차례에 걸쳐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급방법은 공개분양으로 모두 추첨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진주시 호탄동 혁신도시지구 내에 위치한 경상남도개발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접수하면 된다.

진주혁신도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매스(부레옥잠)을 이용한 열병합 시설을 갖추어 온수 등을 공급할 계획으로 초에너지 절약형 탄소제로 그린시티로 조성되며, 남강과 영천강 수변을 이용한 여가선용의 장과 도시와 연결하는 Green-way 조성으로 꿈의 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경남도는 중앙으로부터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연관된 297개의 관련 기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백7만 8천㎡ 규모로 건설되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2012년 1월말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 분양대상토지 430필지 중 407필지를 분양완료 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8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진주혁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시티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 자료 : 건설지원과 공공건축담당
055)211-4327

경남도, 건설현장 대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 나서

- 하도급 관련 업체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경남도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의 체불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정 역점시책으로 건설사업장 대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추진배경으로 그동안 도급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및 근로자, 장비대여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금 지불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발주부서에서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알리면, 공사 감독공무원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관련업체 및 근로자에게 SMS(단문문자전송서비스)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통보하여 대금청구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공사장 현장(감독관) 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록 안내판을 모든 건설현장에 설치 의무화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설치한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도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은 “건설사업장 대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으로 고품질 시공 보장, 건전한 하도급자 육성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의 체불행위 감소로 민생경제 안정 및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02)211-4314

경남도, 도시계획 소통의 場 마련

- 도시계획분야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경남도는 2월 14일 오전 11시,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군 업무담당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도 도시계획 등 소관 주요시책을 확산·파급하고, 시·군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산업용지 적정 공급 및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강중구 경남도 도시방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도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조기발주와 도시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공사장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무엇보다 기술 분야 관계자들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군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시책개발을 통해 일하는 도정, 변화하는 도정을 펼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02)211-4317

경남도, 지방관리항만(무역항) 개발·관리 본격 추진

- 남해안 해양시대를 위해 올해 84억원 투입

경남도는 향후 10년간 지방항만 개발의 골격이 될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맞추어 항만에 물류, 제조, 상업시설 유치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지방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삼천포항 등 6개의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인 통영 중화항을 조선산업 지원, 화물 및 여객수송, 수산업 기지육성 등을 위해 올해 12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전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통영항은 남해안의 어업전진기지 및 해양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길이 150m의 다목적 부두를 건설한다. 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어선대체부두 600m를 확충하여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며 수산업의 메카로 계속 발전시킨다.

삼천포항은 원활한 화물처리와 지역민의 이용편리를 위해 전년도 8월에 준공된 신항만에 배후도로를 확충하고 구항내 접안시설 확충(150m)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부족한 어선접안시설을 해소하고 기상악화 시 소형선 대피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제 옥포항과 장승포항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항만친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항만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연안항인 통영 중화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 및 연안화물 수송의 원활 및 연안거점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방파제 설치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기존 항만시설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에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해항과 옥포항, 고현항에 투기된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삼천포항과 진해항은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작년 이어 금년에도 실시한다.

▶ 자료 : 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055)211-2773



올해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노유자 시설등에도 소방시설 강화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에서는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제도에 대해서 발표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는 신축 및 개축 주택에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처럼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공간의 안전확보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는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간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재분류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강화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적용하여 2014년 2월4일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더불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에 소방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 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의 방화관리대상물을 1급, 2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건축물이 초고층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1급, 2급, 특급으로 세분화하여 재분류하고 그에 대한 명칭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한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여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한다. 민간중심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실기 및 서술형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복·허위 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적절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별 점검능력 평가정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점검능력은 점검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과도한 점검물량을 수주함에 따른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인력 1단위(주 1인, 보조 2인)당 1일 점검면적한도를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기관에서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자료 : 방호구조과 예방담당 055)211-5374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4.33% 상승

-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 하였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1.98%)에 비해 1.16%p가 높은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도 거제시가 14.56% 상승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 중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경남도의 표준지(59천필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의 평균 변동률보다 1.19%p 높은 4.3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경남도 평균 2.98% 보다 다소 높은 나타났다.

경남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세로 이어진 것은 거가대교 개통,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및 김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 분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2.51	1.98	3.14
경 남	1.44	2.98	4.33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거제시(14.56%), 사천시(7.40%), 함안군(5.91%) 등이 다소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원시 마산회원구(0.86%)가 변동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m²당 표준지 최고 지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133-1번지 The Face Shop(대, 화장품 판매점)으로써 695만원(2011년도 75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67번지 외 6필지로 130원이다. 아울러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는 전국 최저가 표준지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가격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간의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경남도 '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 54.83%(전국 58.72%)

- 경남도 '11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 60.15%(전국 58.79%)

경남도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3월 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고 전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4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한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350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012.2.24)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이다.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직접 의뢰하여 조사·평가 공시한 단위면적(m²)당 가격으로써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자료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당
O55)211-4522

12년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0.7% 상승

- 상반기 단가 공고, 항만분야 76개 항목
추가 총 2,129항목

국토해양부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총 2,129항목에 대하여 '12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공고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여 유사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최근 계약실적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이미 운영 중이던 2,053항목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갱신하는 한편, 블록이적 및 적재, 블록전치, 블록거치 등 항만분야 76개 항목에 대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추가로 공고하였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285 → (‘06)991 → (‘08)1,478 → (‘10)1,726 → (‘11)2,053 → (‘12상) 2,129

'12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는 '11년 하반기 대비 평균 0.7% 상승하였으며, 신규 전환 단가는 품셈단가의 87.0% 수준이다. 이번 실적공사비 단가에는 소형고압블록, 차선도색 등 14항목에 대한 현장여건별 단가 보정기준이 반영되었으며, 철근가공 조립, 데크피니셔 등 28항목에 대해서는 적용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가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별로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이미 실적공사비를 자체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대상공종을 확대하고, 아직 자체 실적단가가 축적되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도 금년부터 자체실적단가를 축적·운용할 계획이다.

* LH 776개, 도공 26개, 수공 56개 축적·활용, 철도공단 축적 중('12부터 적용예정)

또한, 금년에는 실적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결정기준 개선, 소규모 공사 보정기준 확대 등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민간전문가 중심의「공사비산정기준 선진화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382

세계로 나아갈 교량설계 기법 개발

- 합리적인 설계법 도입으로 일관된 안전성 확보 및 건설예산 절감

신뢰도 이론에 근거한 '도로교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이 제정되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안전도 확보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경제적 설계를 통한 교량건설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량 설계 시 경험적으로 결정된 하중모델과 계수들로부터 안전도를 확보하는 허용응력법과 강도설계법을 활용함에 따라 이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AASHTO LRFD(미국), Eurocode(유럽) 등

선진국의 신뢰도 기반 설계기준이 선점한 해외 교량설계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5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교량설계 핵심기술연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 "교량해석 및 설계 선진화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도로교 설계기준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9년 하반기부터 도로교 설계기준 기준화 작업에 착수하여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을 제정하였다.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은 다년간에 걸쳐 실측된 자료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결정된 하중모델과 계수를 적용하며, 교량 구조물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한계상태(극한한계상태, 극단상황한계상태, 사용한계상태, 피로한계상태)를 벗어날 확률을 제한함으로써 일관된 안전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선진화된 설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은 ISO 등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신뢰도기반 설계기준으로서, 허용응력법과 강도설계법에 머무르던 국내의 교량설계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 업계의 해외 교량설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개발 결과를 기존의 설계법과 비교할 때 형식과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교의 경우 평균 13.5%~19.3%의 강재절감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강재 활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재료와 시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전율이 증가되는 효과를 설계기준에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율을 확보하면서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절감이 가능하여 기준 정비를 통한 건설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에 제정한 '도로교 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을 국토해양부 관할 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 공사 발주관서에 보급하되, 갑작스런 설계기술의 변화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선행한 후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설계예제 개발 등 실무기술자를 위한 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관선도로과
02)2110-8722

옹벽, 상가 등 위험중후 발견시 #4949로 제보

-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옹벽, 상가, 육교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을 제정하여 대형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안전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매년 옹벽, 상가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에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시설물의 부실징후에 대한 주민 제보 및 지자체 요청으로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시설물의 부실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 유선(1599-4114), 공문 등으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관할 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3

건설안전정보시스템 OPEN

- 건설공사 사고 사례 및 시공평가 DB 구축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고 저감을 위한 노하우가 업체들간에 공유되지 않아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안전정보시스템” (www.cosmis.or.kr)을 2.1(수)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은 “건설안전 사고사례 DB”, “우수사례 소개”, “건설공사 시공평가”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통해서 손쉽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건설안전 사고사례 DB”는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를 사고내용,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으로 분석하여 제공하였으며, 향후 발생하는 사고사례는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하게 된다.

“우수사례 소개”는 건설현장에서 공법변경 등으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한 사례를 건설현장 관계자가 직접 게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게시자(업체)에 대하여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전후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해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를 DB화 하는 것으로, 향후 입찰참가자격심사(PQ)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공평가결과는 입찰참가자격심사시 10% 반영되며, 현재는 건설업체가 PQ시공평가 점수중 가장 높은 점수만 제출해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시공평가결과가 DB로 관리되므로 개선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최근 발생한 사례를 추가하여 건설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관계자에게 현장안전교육을 매년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6

온실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로 탄소 배출·정체시간 줄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석유자원의 고갈로 도래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방안으로 도로건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개발된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포장 공법의 활성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및 차량의 정체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로 포장에서는 160~170°C의 고온에서 생산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왔으나, 가열 아스팔트 포장 생산과정에서 많은 양의 연료가 소모되며,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되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는 대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도로건설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학회 등 포장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장 성능 개선연구”를

통해 2010년도에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일반국도 등에 실시한 시험포장 등을 통해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아스팔트 제조 과정에서의 가열 온도를 약 30°C 이상 낮춘 130~140°C 온도 범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과정에서 골재 가열을 위해 사용되는 약 2억2천만ℓ 벙커-C유의 약 35%인 7,700만ℓ를 절감시킬 수 있다.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제조 과정에서 약 6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비해,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3만톤 저감(탄소배출권 44억원)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6,600만 그루의 식목 효과에 해당된다. 또한 공사시간 단축도 가능하여 포장도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차량 정체시간도 약 25%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일반국도 기준으로 연간 약 3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로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운전자 및 주민들의 불편 감소 및 대기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포장의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자전거도로, 저소음포장, 재활용 포장 등에 계속해서 친환경 도로기술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녹색도로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87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공포

국토해양부는 2월 22일(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년 중 마련)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내용 —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

*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달성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 등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전기·가스·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관리

□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실시

*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 및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

*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제한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설계 시 반영

□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2

국토부, 교통사고 잦은 1,000곳을 선정하여 개선키로

-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관리청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약 1,000곳을 선정하여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사고 통계와 사고 원인조사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늘 2월말까지 사고다발 지점을 선정하여,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의 경우는 조사결과를 금년도에 수립하는「국도 위험도로 5단계('13~'17)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급한 구간은 6개월 앞당겨 금년 하반기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자동차 사고 34개국 중 29위)에 머무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G-10수준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자동차, 철도, 항공, 항만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종합관리 T/F팀(팀장 : 항공정책실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주 부문별 사고사례 조사 등을 통한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 ('06) 6,652명 → ('08) 6,145명 → ('10) 5,817명

* '10 부문별 사망자 : 자동차 5,505명, 철도 135명, 항공 1명, 해양 176명

▶ 자료 :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02)2110-874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현황을 조사하여, 이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는 '12.2.14~2.16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8



신기술 정보

일체형 피에스(PS)보와 유압잭으로 띠장에 선행 힘모멘트를 도입하여 버팀대 설치간격을 넓힌 흠막이 지지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스마트엔지니어링
	(주)한진중공업
	남광토건(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45호
- 기술분야 : 토질 및 기초
- 내용요약

이 기술은 반력부재와 중앙부재 및 간격 유지용 강봉으로 구성되는 일체형 피에스(PS)보를 띠장에 부착하고, 반력부재와 중앙부재 사이에 위치시킨 유압잭으로 반력부재에 소정의 수평력을 가해서 띠장에 선행 힘모멘트를 도입시킴으로써, 띠장의 휨응력을 작게 하여 버팀대의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는 일체형 피에스(PS)보와 유압잭을 이용하여 띠장에 선행 힘모멘트를 도입하는 흠막이 지지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반력부재와 중앙부재 및 간격유지용 강봉으로 구성되는 일체형 피에스(PS)보를 띠장에 고정 설치하고 일체형 피에스(PS)보에 유압잭을 이용하여 선행 힘모멘트를 도입함으로써 띠장에 발생하는 휨응력을 작게 하여 버팀대의 설치간격을 넓힐 수 있는 흠막이 지지공법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 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한국지오택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44호
- 기술분야 : 토질 및 기초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 기술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주입시공 자동관리,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2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고현지구 지하터널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2건
- 심의일자 : 2012. 02. 24(금)
- 요 청 자 : 거제시장, 경상남도지사(생태하천과)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요청 사항	심의결과
고현지구 지하터널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거제시 고현동 독봉산(지하 터널식) · 사업내용 : 저류지 L=640m, B=10.0m, H=10.0m · 사 업 비 : 480억원(공사비 431, 보상비 49)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입찰방법 (일괄입찰)	일괄입찰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가좌동(가좌천/지방하천)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3.1km, B=30~50m · 사 업 비 : 308억원(공사비 265, 보상비 43)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실시설계 (적정성)	조건부 의 결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거제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정비 L=9.5km · 사 업 비 : 132억원(공사비 132)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실시설계 (적정성)	조건부 의 결

▶회계과 (055)211-3554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2년 2월 현재	계	138	126,481	118,543	
	토목	59	90,201	83,770	
	건축	9	12,494	12,005	
	용역	27	16,797	16,117	
	물품	39	2,260	2,204	
	기타	4	4,729	4,447	

▶회계과 (055)211-3543



기술사 시험 일정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96회	2012.01.13 - 2012.01.19	2012.02.12	2012.03.23	2012.03.26 - 2012.04.04	2012.03.26 - 2012.03.29	2012.04.28 - 2012.05.10	2012.05.18
2012년/ 제97회	2012.04.20 - 2012.04.26	2012.05.13	2012.06.29	2012.07.02 - 2012.07.05	2012.07.02 - 2012.07.05	2012.07.28 - 2012.08.09	2012.08.17
2012년/ 제98회	2012.07.20 - 2012.07.26	2012.08.12	2012.09.21	2012.09.24 - 2012.09.27	2012.09.24 - 2012.09.27	2012.10.27 - 2012.11.08	2012.11.16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2년/ 제1회	2012.02.03 - 2012.02.09	2012.03.04	2012.03.16	2012.03.19 - 2012.03.28	2012.03.19 - 2012.03.22	2012.04.21 - 2012.05.04	2012.06.01
2012년/ 제2회	2012.04.27 - 2012.05.03	2012.05.20	2012.06.08	2012.06.11 - 2012.06.14	2012.06.11 - 2012.06.14	2012.07.07 - 2012.07.20	2012.08.17
2012년/ 제3회	2012.08.03 - 2012.08.09	2012.08.26	2012.09.07	2012.09.10 - 2012.09.13	2012.09.10 - 2012.09.13	2012.10.13 - 2012.10.26	2012.11.23
2012년/ 제4회	2012.08.24 - 2012.08.30	2012.09.15	2012.10.05	2012.10.08 - 2012.10.11	2012.10.08 - 2012.10.11	2012.11.03 - 2012.11.16	2012.12.14

2012년 토목의 날 행사 안내

1. 일시 : 12. 03. 30(금) 오후 2시
 2. 장소 : 대한건설협회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
 3. 부대행사
 - 사진 공모전
 - 토목시설물모형 경진대회
 - 토목 교육·기술 관련 UCC 경진대회
- ※ 자세한 사항은 대한토목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 접수

1. 논문발표
 - 개최일시 : 2012년 4월 28일(토)
 - 개최장소 : 중앙대학교 R&D Center
(서울시 흑석동 소재)
 2. 논문제출자격
 - 학회 정회원
 3. 논문접수관련 안내
 - 초록접수 : 12년 3월 5일(월)~3월 8일(목)
 - 논문접수 : 12년 3월 15일(목)~3월 20일(화)
 4. 제출양식: 논문원본파일
(HWP, A4사이즈 2페이지, 샘플파일참조)
 5. 제출방법: 학회홈페이지(www.aik.or.kr)
 6. 심사비용: 4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 (www.ai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6

FAX : (055)211-3519

e-mail : moonsoo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